#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이 민주주의 실현 인식에 미치는 영향성 분석

전충원·김민수 | 동국대학교

✣ 국문요약 ✣

본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국정운영평가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양극화 인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앵그리 보터(angry voter)의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적 갈등의 극심화 현상이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질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네 가지의 가설을 설정했다. 첫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다.' 둘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평가에 부정적일 것이다.' 셋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이념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넷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지지정당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투표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순차적 로짓 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로짓 분석'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경제적 양극화의 인식보다는 사회적 양극화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며, 양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민주주의 실현의 인식 정부 국정운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정치참여의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제어** | 양극화, 민주주의, 정치참여, 선거

# Ⅰ. 서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최대' 이러한 문구는 최근 경제신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제목들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덫에 걸려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로 인하여 자살률, 이혼율, 생계형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하여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민주주의 인식과 정부의 국정운영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앵그리 보터(angry voter)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회적 갈등의 극심화 현상이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이라는 요소가 국민들의 체제에 대한 인식을 거쳐 참여라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경제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제이며,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체제 불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불평등의 경우 정치체제적인 문제보다 그 중요성을 뛰어 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체제 인식과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라는 갈등요소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체제 인식과 더불어 정치참여의 문제를 한 프레임에서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과 정치 참여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한 프레임에서 본다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 형성의 경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은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국민들의 인식 결

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국정운영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사람 즉,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권에 대한 국정운영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정치참여라는 측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정치참여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정치참여의 저하를 증명해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본 논문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분석해 왔던 갈등인식과 체제 인식, 정치참여의 문제를 한 프레임에서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전에 파편화된 분석을 하나로 모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한국 정치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을 시작으로 하여 II절에서 기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인식의 연관성을 밝힌 다양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볼 것이며, III절에서는 분석방법과 가설 설정 데이터 코딩을 설명할 것이다. IV절에서는 통계분석 해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가정이 유의미한가를 살펴볼 것이다. V절에서는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의미성을 정리하고 본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 II. 기존 연구와 개념틀

본 연구의 핵심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경제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때,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팅턴(Huntington 1991; 강문구 역 외 2011)은 *The Third wave*에서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조장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경제적 복지수준은 민주적 제도와 강력하게 연관되는 '개인 상호간 신뢰감, 삶의 만족도, 능력의 발전'을 촉진

하였다. 둘째, 경제발전은 그 사회의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신뢰, 만족, 능력의 특징을 발전시켰다. 셋째, 경제발전은 사회집단 간 분배에 필요한 자원을 한층 더 많이 만들어 내며, 그 결과 조정과 타협을 용이하게 한다. 넷째, 세계시장의 참여는 부와 영향력의 비정부 자원을 창출하게 한다. 다섯째, 경제발전은 중간계급의 확산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궁핍한 다수가 소수의 부유한 독재자와 맞서 있는 심각한 불평등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성장은 어렵다는 헌팅턴(Huntington)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분배의 공정성의 붕괴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은 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쉐보르스키(A. prezworski 1987)는 『이행의 게임』[1)]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분배갈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플리스피쉬(Flisfisch)의 가정인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갈등을 폭발시키며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민주적 제도를 불안정화하고 독재의 새로운 순환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경제위기는 유약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억압으로 역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남미와 동구의 민주주의를 예를 들면서 새로운 민주체제들은 국가의 힘이 약하여 대기업에 약하고, 조제징수에 무능하며, 지배에 대한 복종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언급하였다.

강상욱(1997)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병립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진단했다. 강상욱(1997)의 논문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병립에 관한 다양한 논점 연구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이 둘의 공존이 필연적이지도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공존을 위한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특히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한국에서의 시장 민주주의는 대자본의 독점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 간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둘째, 기업별 노조주의를 철폐시켜 노동계급 전체의 집합재 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즉, 자본의 독식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국의 시장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강우진(2012)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치적 효과: 민주주의의 효능성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에서 IMF 이후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해졌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는 데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강우진은 논문에서 경제적

1) 아담 쉐보르스키의 『이행의 게임』은 임현진·송호근, 『전환의 정치, 전화의 한국사회』(사회비평사, 1995)에서 발췌한 글이다.

불평등에 따른 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과 신뢰를 측정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에 대한 회의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체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조한상(2014)은 "한국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실현의 지체"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양극화는 정치적 기본권의 평등보장 저해, 민주적 의사소통의 저해, 국가공동체의 안정성 위협의 문제점을 들면서 헌법상 민주주의의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 즉,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참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언론의 통제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저해되고 있으며, 경제적 갈등은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해 결국 국가공동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임혁백(2011)은 "Better democracy, better economic growth? South Korea"에서 1990년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로의 경제체제 전환은 1997년의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결국 1997년의 경제위기는 한국의 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로 들어서게 하였으며, 한국의 신주유주의 경제정책은 소득의 불균형사회체제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친 기업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는 재벌들에게 자본들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고착화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결국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임혁백(2011)은 한국의 질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혁백(2007)은 "양극화 시대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중산층이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중산층의 몰락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말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왕팽(Wang Feng 2011)은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East Asia"에서 국가의 경제발전 후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은 결국 사회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며, 결국에는 민주주의의의 불안정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불균형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sia's Challenged Democracies"(Larry Diamond 외 2014)에서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아시안 바로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는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성이 동아시아 및 한국의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앞에서 살펴본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틀을 변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일반적인 지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논의되었던 결과들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이 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민주주의 인식'이라는 개념을 본 논문의 취지에 맞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민주주의 인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포함한 민주주의를 작동하고 구성하는 정당, 선거와 같은 원리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이다. 즉, 정당에 대한 인식, 선거 참여의 문제, 이념 차이의 인식을 포괄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테두리에 포함시킨다. 또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인식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주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아닌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이 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경향성을 보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지을 것이다.

## III. 연구 가설 및 설계

### 1. 연구 가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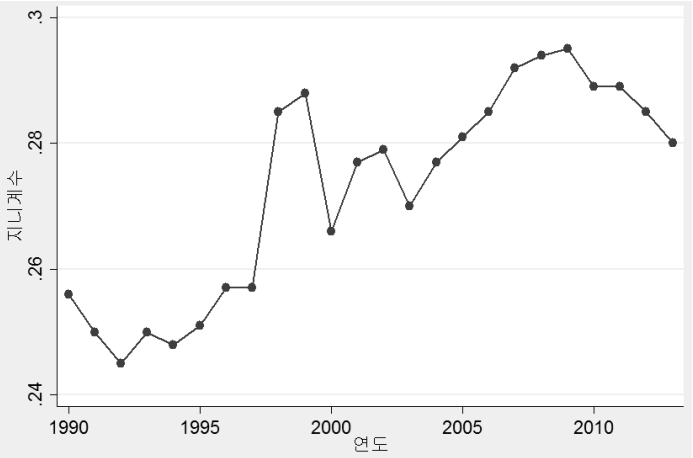
본 논문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 '민주주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참여라는 개념도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모두 분석하려고 한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검증할 연구 가설이다.

첫 번째 가설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이 '민주주의 실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표 1〉 연구 가설 설정

| |
|---|
| 1.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다. |
| 2.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평가에 부정적일 것이다. |
| 3.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이념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
| 4.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지지정당이 없을 것이다. |
| 5.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투표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

〈그림 1〉 지니계수 변화(1990~2013)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림 1〉은 최근 20년간 한국의 지니계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한국의 지니계수가 1997년과 2008년에 극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단순히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국가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할 것이라 가정했다.

두 번째 가설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이명박 정권의 국

정운영평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 설정했다. 앞의 논의에서 언급하였지만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든 것은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친기업 정부를 표방하고 개방과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폭넓게 도입하였고 실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지나오면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 국정운영평가를 좋지 않게 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세 번째 가설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이념적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것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정치인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은 모두 똑같은 존재이며,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을 세웠다.

네 번째 가설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지지정당이 없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는 정치적 효능감의 측면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민주주의 작동원리 중 하나가 정당정치이며, 한국의 경우도 정당은 정책 생산의 핵심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정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정당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가설을 세웠다.

다섯 번째 가설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정치적 효능감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치참여의 한 형태인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2. 변수의 조작

종속변수로는 총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총 1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1 '잘 실현되고 있다'부터 5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11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환하는 이유는 통계방법상 필요하기 때문이며, 변수를 조작하였다고 하여 의미의 큰 변화는 없었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이 변수 역시 11점 척도로 되어 있어 첫 번째 종속변수와 같은 방법으로 코딩을 하였다. 세 번째 종속변수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이념차이를 0부터 10까지 11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0의 경우 두 후보 간 이념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10의 경우 두 후보의 이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념 차이 변수는 응답자들이 두 후보의 이념을 측정한 수치를 서로 빼서 0~10까지의 거리 척도를 생성했다. 네 번째 종속변수는 지지정당 유무이다. 0은 지지정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1은 지지정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종속변수는 투표참여 여부이다. 0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1은 투표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로 사용될 변수는 먼저 핵심변수인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변수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가 5년 전과 비교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갈등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 답변 합을 사용할 것이며, 1 '매우 심해졌다'부터 7 '매우 완화되었다'까지 7점 척도로 경제 양극화에 대한 갈등의 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변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할 것이며, 1 '매우 불가능하다'부터 5 '매우 가능하다'까지 5점 척도로 사용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변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와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두 질문을 사용해 만들었다. 각각의 질문이 1~4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하여 1~7점까지의 정책에 대한 호감도 강도변수를 형성했다. 1은 신주유주의 정책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며 7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낸다. 이념 변수는 1 '매우 진보'부터 10 '매우 보수'까지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는 1 '20대' 5 '60대 이상'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수준 변수는 1 '중졸 이하' 2 '고졸 이하' 3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이념차이 변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 차이를 0 '차이 없음'부터 10 '매우 차이남'까지 11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변수 생성 방법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 이념차이 변수를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다. 다음의 〈표 2〉가 코딩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변수 코딩 방법

| 구분 | 변수 이름 | 조작화 및 설명 |
|---|---|---|
| 종속변수 |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인식 | 0점 “실현되지 않고 있다”부터 10점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까지 11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환 1점 “실현되지 않고 있다” 5점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 |
| | 이명박 정권 국정운영평가 | 0점 “매우 못했다” 10점 “매우 잘했다”의 11점 척도를 1점 “매우 잘했다” 5점 “매우 못했다” 5점 척도로 변환 |
| | 박근혜·문재인 후보 간 이념차이 인식 | 각 후보 간 이념평가를 사용하여 0 “차이가 없다” 10 “차이가 확실하다” 11점 척도의 이념 차이인식 변수를 형성 |
| | 지지정당 유무 | 지지정당 유무를 물어본 설문조사를 통해 0 “지지정당 없음” 1 “지지정당 존재”의 이항 변수를 형성 |
| | 투표참여 여부 | 투표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0 “불참” 1 “참여”의 이항변수를 형성 |
| 독립변수 | 경제 양극화 인식 | 지난 5년간 경제 양극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1점 “경제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7점 “경제 양극화가 약해졌다”의 7점 척도를 사용 |
| | 사회 양극화 인식 | 한국에서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질문으로 1점 “극심하다” 5점 “심하지 않다” 5점 척도를 사용 |
| | 경제정책 인식 | 대표적 신자유주의 정책인 ‘비정규직 정책’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 강도를 측정한다. 1점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한 찬성” 7점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부정” |
| | 이념 | 응답자 본인 이념측정 문항을 통해서 0 “매우 진보” 10 “매우 보수” 11점 척도 변수 형성 |
| | 정당이념차이 인식 |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 인식을 통해서 0 “차이 없다” 1 “차이가 크다” 11점 척도의 정당이념격차 인식 변수 형성 |
| | 나이 | 세대별로 1 “20대” 5 “60대 이상”의 나이변수 형성 |
| | 교육수준 | 교육수준은 1 “중졸 이하” 2 “고졸 이하” 3 “전문대졸 이상” 세 단계로 구분하여 변수형성 |
| | 소득 | 소득 변수는 1 “100만 원 미만”부터 5 “500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 5점 척도로 형성 |
| | 지역 | 지역은 영남과 호남 구분을 위해 더미 변수 형성 |

### 3. 활용 데이터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2012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18대 대선 직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 조사"이다. 사용할 방법론은 총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서열 로짓 회귀분석 기법이다. 종속변수가 서열관계를 지니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 정규분포의 오차에 의존하는 서열 프로빗 회귀분석 기법과 모형과 무작위 오차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의존하는 서열 로짓 회귀분석 기법 두 분석 기법이다(이병락 2013). 하지만 두 기법에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서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또 다른 분석기법은 다중회귀 모형이다. 다중 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선형이고 2개 이상의 설명변수를 갖는 모형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최소제곱 추정법을 통하여 분석을 한다(이병락 2013). 마지막 분석기법은 로짓 회귀분석이다. 로지스틱 분석은 종속변수가 '0과 1'처럼 이원 변수일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최소제곱 추정법은 최선의 선택이 안 되며 최우 추정법을 사용하여 최선을 선택하는 방법이다(이병락 2013).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서열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할 것이며, 모형 3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4 모형 5에서는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 Ⅳ. 통계분석

### 1. 서열 로지스틱,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결과

다음의 〈표 3〉의 통계분석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국민들의 인식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모형 1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실현 차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의 결과를 보면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의 경우 민주주의 실현 인식 형성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양극화의 경우 민주주의 실현의 인식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핵심변수 외에 이념 변수도 음의 관계로 유의미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변수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민주주주의 실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 2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 2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이명박 정부평가와 양의 관계로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의 경우 경제적 양극화가 완화 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사회적 양극화의 경우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경제정책 인식에 따른 국정운영평가이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결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연관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충되게 나온 것이라 추측된다. 그 외에도 지역적인 변수도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소득, 교육수준, 나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박근혜, 문재인 후보 사이의 이념에 차이를 느끼는 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의 가설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이념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문재인 후보 간의 이념적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설정했던 가정과 반대되는 결과이며,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무관심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념적 갈등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의 모형과는 다르게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 외에 다른 사회경제적·이념적 변수들은 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간의 이념적 거리에 대한 인식은 결국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과 같은 사회 문제가 결정적 변수라는

〈표 3〉 회귀분석결과

| |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모형 4 | 모형 5 |
|---|---|---|---|---|---|---|
| 핵심변수 | 경제 양극화 | 0.054<br>(0.05) | 0.228***<br>(0.05) | -0.191*<br>(0.11) | 0.042<br>(0.05) | 0.063<br>(0.08) |
| | 사회 양극화 | 0.245***<br>(0.08) | 0.246***<br>(0.08) | -0.541***<br>(0.21) | 0.195**<br>(0.09) | 0.405***<br>(0.15) |
| | 경제 정책 | 0.037<br>(0.04) | 0.191***<br>(0.04) | -0.087<br>(0.11) | -0.015<br>(0.05) | -0.159**<br>(0.07) |
| 이념 | 이념 | -0.255***<br>(0.07) | -0.401***<br>(0.07) | -0.244<br>(0.18) | -0.306***<br>(0.08) | 0.101<br>(0.13) |
| | 정당이념차이 | -0.013<br>(0.02) | -0.059**<br>(0.02) | | 0.054**<br>(0.03) | 0.044<br>(0.04) |
| 사회경제변수 | 교육수준 | -0.028<br>(0.11) | -0.213**<br>(0.11) | 0.022<br>(0.27) | -0.179<br>(0.12) | 0.491**<br>(0.19) |
| | 소득수준 | 0.141***<br>(0.05) | 0.056<br>(0.05) | -0.113<br>(0.12) | 0.054<br>(0.05) | 0.025<br>(0.08) |
| | 나이 | 0.158***<br>(0.06) | 0.148***<br>(0.05) | -0.107<br>(0.14) | 0.342***<br>(0.06) | 0.845***<br>(0.10) |
| | 영남 | 0.280**<br>(0.13) | 0.452***<br>(0.13) | 0.137<br>(0.33) | 0.616***<br>(0.15) | 0.038<br>(0.22) |
| | 호남 | 0.266<br>(0.16) | -0.625***<br>(0.16) | 0.607<br>(0.41) | 0.800***<br>(0.18) | 0.201<br>(0.30) |
| | Con | | | 6.532***<br>(1.40) | -1.464**<br>(0.65) | -1.689+<br>(0.99) |
| | N | 1094 | 1094 | 1094 | 1094 | 1094 |
| | R2 | 0.0225 | 0.0746 | 0.0144 | 0.1004 | 0.1289 |
| | Threshold1 | -2.640***<br>(0.61) | -0.259<br>(0.57) | | | |
| | Threshold2 | -0.824<br>(0.58) | 1.368**<br>(0.57) | | | |
| | Threshold3 | 1.808***<br>(0.58) | 3.985***<br>(0.58) | | | |
| | Threshold4 | 4.457***<br>(0.59) | 6.493***<br>(0.65) | | | |

*** p〈0.01 ** p〈0.05 * p〈0.1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4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지지정당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이 모형을 통해 나온 결과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확고한 지지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무당파층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지지정당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변수의 경우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확고한 지지정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보수층에서는 지지정당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사회 경제적 변수의 경우 나이, 지역 변수가 지지정당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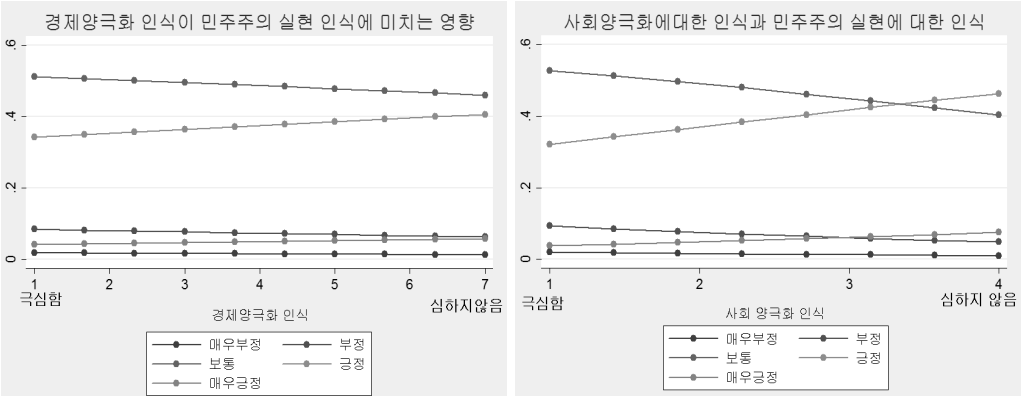
모형 5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 5를 통한 분석결과를 보면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투표참여 결정에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투표참여결정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의 경우 투표참여와의 관계가 양의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정책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수의 경우 나이만이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에 참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2. 예측 확률

앞에서 실시한 서열 로짓 분석과 로짓 분석을 통해서 계수값을 통해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성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독립변수의 단위변화에 따라 값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예측 확률(Predict Probability) 기법이다. 예측 확률은 일정한 조건을 설정한 후 특정 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예측 확률 기법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민주주의 실현 인식에 어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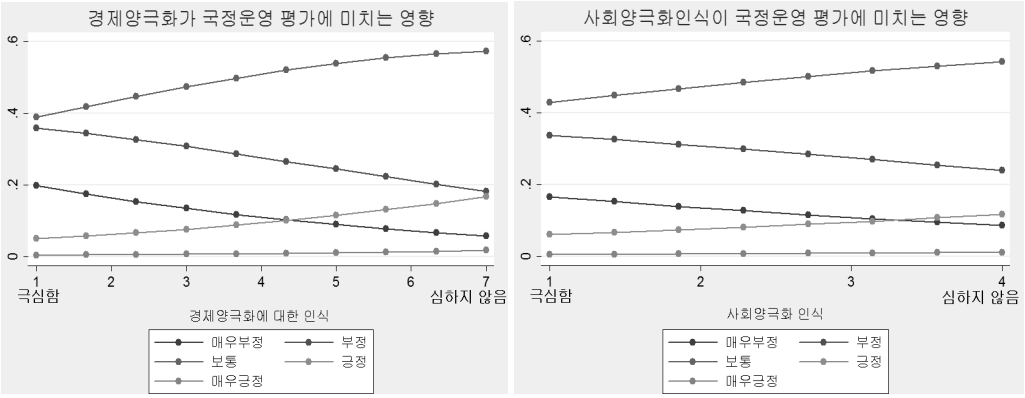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 실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경제 양극화의 경우 큰 경향성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정한 변화의 양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인식이 보통 혹은 긍정인 경우 경제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유연해질수록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민주주의 실현의 인식 중 보통의 인식의 비율은 줄어드는 만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만족의 가능성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 양극화 인식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 양극화 인식의 경우 사회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보통의 의견은 눈에 띄게 줄어들며,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양극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의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 결국 이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보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성을 지니며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경제적 양극화 인식의 경우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긍정과 매우 부정의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유연해질 경우 국정운영평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가능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대한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제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 역시 경제적 양극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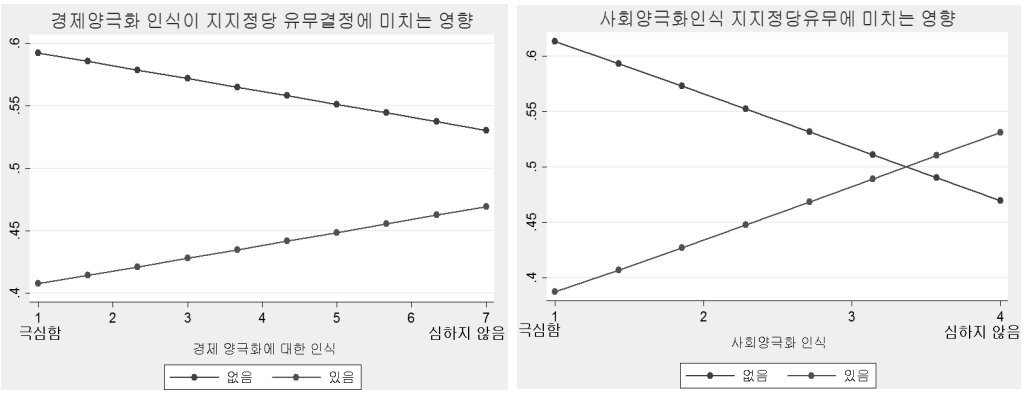
〈그림 3〉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이 국정운영평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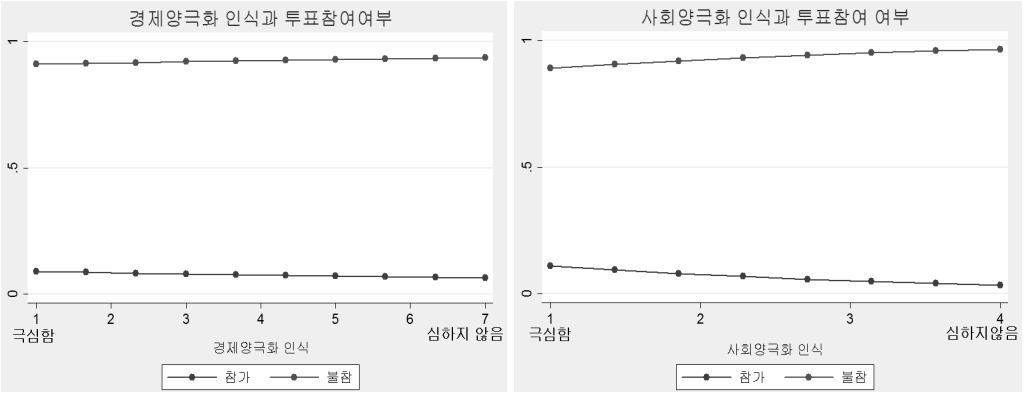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양극화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 변화에 따른 지지정당 유무의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를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지정당 유무의 가능성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양극화 인식의 경우 심하지 않다고 인식을 할 경우 지지 정당이 있을 가능성이 5% 정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가능성도 5% 정도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양극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지지정당을 가지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양극화 인식의 경우 그 경향성은 경제 양극화 인식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회 양극화 인식

〈그림 4〉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과 지지정당 유무



〈그림 5〉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와 투표참여




이 심하지 않을 경우 지지 정당이 있을 가능성이 극심할때 보다 15%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사회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지지정당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경제적·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투표참여 여부의 가능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반적으로 다른 분석들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투표참여 여부 가능성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경제 양극화 인식의 경우, 인식의 변화에 따른 투표 참여 여부 가능성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사회 양극화의 경우 미세한 변화가 있기는 하나 큰 경향성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의 변화는 투표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실시한 통계분석과 예측확률 결과들을 종합 분석해보면 사람들이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인식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를 볼 수 있다. 먼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실현 인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지지정당과 투표참여 결정과도 연결되어 뚜렷한 지지정당을 가지지 않는 무당파의 경향이 강하며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무당파의 경향을 지니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들은 또한 후보 간의 이념 격차는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념적 차이를 강하게 인식은 하나 정치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지지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투표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념적인 성향은 강하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념적 구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지지정당이 존재한다. 또한 특정 정치인 간의 이념적인 차이를 크게 보지 않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본 논문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 실현,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 박근혜·문재인 후보 간 이념격차 인식, 지지정당, 투표참여 총 다섯 가지의 모델로 이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이고,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온다. 이는 결국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와 체제에 대한 반감이라고 해석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지정당이 없는 경향성이 크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 효능감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하여 확고한 이념적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며, 가설과도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당보다는 특정 정치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본 논문의 함의는 기존의 거시적인 경제동향과 민주주의 안정성이 아닌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전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그 경향성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특정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행태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한계는 각 분석 모형 분석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의 개개인의 인식의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변수들 간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총 다섯 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특정상황 아래에서 어떠한 경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찾아낼 수 있었으나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가 계속된다면 이 모델들을 하나로 더 끈끈하게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상욱. 1992.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시장·경제·민주주의』 299-350. 서울: 나남.

강우진. 2012. “한국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치적 효과: 민주주의의 효능성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2호: 145-175.

_____. 2013.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3호: 173-198.

_____. 2013. “박정희 신드롬과 한국의 민주주의: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2호: 73-105.

김순영. 2006. “불평등과 한국의 민주주의.”『아세아연구』 49집 4호: 37-67.

이병락. 2013.『계량경제학』.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임혁백. 2007. “양극화 시대의 한국 민주주의.”『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273-303. 서울: 인간사랑.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2호: 43-66.

조현연. 2006. “민주화·세계화 ‘이후’ 대안 정당정치 모형연구.”『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체제 모형을 찾아서』 125-159. 서울: 함께읽는책.

『머니투데이』, 2013.12.18. 국민절반 “경제수준 중산층보다 낮다.”

『세계일보』, 2014.01.02. 경제 [벼랑끝 가계 이대론 안 된다] 맥킨지 “韓, 빈곤한 중산층 출현” 경고.

Chaibong, Hahm. 2008. “South Korea’s Miraculous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19: 128-142.

Diamond, Larry et al. 2009. “Asia’s Challenged Democracy.” *The Washington Quarterly* 32 1: 143-157.

Feng, Wang. 2011. “The End of ‘Growth with Equity’?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East Asia.” *Analysis from the East-West Center*, No.101.

Huntington, Samuel P. 저, 강문구·이재영 역. 2011.『제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서울: 인간사랑.

Im, Hyug Baeg. 2011. “Better democracy, better economic growth?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1 32: 579-597.

Long, J. Scott. 1997. *Regression Model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 114-147. SAGE Publication.

접수일자: 2015년 10월 2일, 심사일자: 2015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9일

**[Abstract]**

# Analysi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Polarization

Jun, chung won | Dongguk University
Kim, min su | Dongguk University

The key-point of this article is mutual relation between realize democracy and social·economical polarization. On the base line, It has an idea that people who believe polarization is getting worse will estimate democracy do not working. And also It assume these people aren't going to participate political act. To prove these assumptions, it make four kind of hypothesis. First, people who believe polarization is getting worse would estimate democracy do not working. Second, people who believe polarization is getting worse would negative estimate about Lee myeong bak government. Third, people who believe polarization is getting worse will not catch the ideology difference between Park guen hye and Moon jae in. Fourth, people who believe polarization is getting worse would don't have supporting party. Fifth, people who believe polarization is getting worse would not participate in election. Through these hypothesis, it would analyze corrlation between.

■ Keyword: polarization,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election